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이나 처음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친교실로 가셔서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1. 2026년 교회표어(2026 Vision Statement)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의 길과 생명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2. 추수감사예배(Thanksgiving Worship Service) 다음 주일(11/22)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합동예배(combined service)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주의 만찬(Lord's Supper)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감사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3. 수요저녁예배(Wednesday Evening Worship) 수요저녁예배가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 EM/유쓰 기도요청(Pray for EM and Youth Ministry) EM과 유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5주시기를 바랍니다.

5.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보내기 (Operation Christmas Child) 매년 주일학교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세계 각 곳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보내기(OCC)"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물상자에는 아이들 연령에 적당한 필수품과 장난감, 그리고 전도지가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53개의 선물상자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헌금(donation)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상자 하나 당 선물과 운송비 $10을 포함해서 약 $30 정도 소요됩니다. 체크로 헌금을 하실 때 "OCC"라고 메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상자를 직접 만들어 오실 분들은 상자를 교회에서 픽업하셔서 11/15주일까지 선물상자를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세관통과 때문에 내용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선물상자를 만들려고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물상자 만들기: 오늘 친교 후 친교실

6. 심방요청(Request for Pastor's Visit)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 심방팀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송명희 집사 301-613-0337)

7. 지난 주일 예배통계(Last Week's Statistics):
11/8 주일예배 출석합계: 26명(1부2, 2부19, EM3, 유아2) 헌금합계: $1,540.00(OCC $190 포함)

◈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한명우 집사: 심장판막 역류증 회복
2. 오명현 권사: 치유와 건강 회복
3. 강무줄 권사: 건강과 평안
4. 박정숙 권사: 허리와 다리 통증 회복
5. 이고은: 치유의 기적
6. 박성아 집사: 리엘의 건강한 성장
7. 제시카: 손과 목과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8. 송명희 집사: 한국 방문(10/14 ~ 11/16)

MADE IN KOREA 사용템플릿 11254 www.yfkorea.com

메릴랜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2026년 11월 15일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 사도행전적인 교회
✝ 믿음 성장이 있는 교회
✝ 교회개척적인 교회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Burntwoods Church)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43-396-3097 (목사관)

대면예배 1:30pm / 라이브스트리밍 8:00am 2026년 11월 15일

주일예배 순서
Sunday Worship Program

인도(Presider): 이웅기 목사
[* 일어섭니다/Please stand.] Pastor Woongki LEE

광고 Announcements ..... Presider 인도자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 All Together 다같이

묵도 Opening Prayer* ..... Presider 인도자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9번(시편 15편).....다같이
No. 9: Psalm 15 All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Apostles' Creed)..... All Together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 .....소병전 안수집사
Deacon Byung John SOH

찬양 Hymn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통27).....다같이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All Together

헌금봉헌 Offertory* .....다같이
All 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사도행전(Acts) 28:16~31.....교독/다같이
Response Reading/Together

말씀선포 Message.....**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헌신의 찬송 Hymn.....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통270).....다같이
I am a Stranger Here All Together

축도 Benediction* .....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함께 기도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7:7)

-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소서
-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EM, YM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 학업 성취, 취업, 성실한 직장생활, 좋은 친구, 결혼 등등

오늘의 말씀 메모합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지난 주 설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행 28:1−15)

친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 주는 사람 사랑입니다. 룻기에서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인자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인자를 베풀고, 나오미는 룻의 앞날을 위해 길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오가는 인자는 한 가정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멜리데 섬에서도 친절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 일행은 난파에서 살아났지만, 젖은 몸으로 낯선 해변에서 비와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섬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따뜻하게 맞아 줍니다. 친절은 상대의 형편을 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치고 추웠던 바울도 친절을 받기만 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모아 불에 보탭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살인자로 판단했다가 아무런 해가 없자 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쉽게 뒤집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종의 생명을 약속대로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독사의 운명이 아니라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영광도 바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보블리오의 환대는 아버지의 치유로 이어지고, 다른 병자들의 회복은 다시 바울 일행을 위한 섬사람들의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계산하지 않고 베푼 친절이 오가면서 더 커지고 로마로 가는 길도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생의 길을 알려 주기에 가장 귀한 사람 사랑입니다. 물질의 도움은 사라질 수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게 합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먼 길을 걸어 나와 기다림으로 지친 바울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환대와 실제적인 섬김, 따뜻한 격려라는 친절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 주며 함께 기도하는 작은 친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려 하면 친절은 고갈되지만, 먼저 베풀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삶이 됩니다.

11/22/26 예배순서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위원
	장년, EM/유쓰 예배	대면예배 오후1:30 / 라이브스트리밍 오전8:00		
	2부 대면예배	이웅기 목사	교독 / 다같이	TBD